



변장해선 사방

리 완 기

변장술에 능한 삶놈이 있었습니다.

감쪽같이 토끼로 변장한 삶놈은 토끼동산에 기여들었습니다.

아무 토끼나 트집을 걸어 으스스한 곳에 끌고가 해치려고 생각한 삶놈은 사방을 살피며 돌아다녔습니다.

토끼동산의 유원지의자에 앉은 삶놈은 옆의자에서 재빛토끼와 검정토끼가 하는 말에 귀를 도사리었습니다.

《검정토끼야, 난 저기 유원지로정도를 해설해주는 흰토끼앞에서 껌을 씹었다가 정말 혼났어. 어찌나 야단하는지 얼굴을 들지 못했다니까.》

검정토끼가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그럼, 모임장소에서 껌을 씹는것은 도덕이 없는 표현이지. 도덕에 밝은 흰토끼가 그런 문체에선 용서가 없다고 하더라. 너나 나나 소소한것부터 주의해서 말듣지 않게 하자.》

이들의 말을 들으며 삶놈은 아주 그럴듯한 껌을 생각했습니다.

(흰토끼가 해설할 때 껌을 씹는척 하면 나에게 욕을 하겠지. 그때...)

삶놈은 토끼들속에 섞여 유원지로정도에 태연히 섰습니다.

흰토끼가 로정도해설을 시작하자 삶놈은 빈입을 다시며 껌을 씹는 시늉을 계속했습니다. 소리까지 짹짹 내면서 말이지요.

이제 흰토끼가 도덕이 없다고 하면 내가 언제 껌을 씹었는가고 혀를 내밀고 떠들썩

해볼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보아 구석진 곳으로 끌고갈판이지요.

삶놈은 흰토끼와 눈을 마주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흰토끼가 자기쪽을 보는것 같으면 어서 껌씹는것을 보라고 입을 크게 벌리고 꺾꺾거렸습니다.

로정도해설이 끝나자 흰토끼가 《여러분, 저길 보십시오.》하며 손가락으로 삶놈을 가리켰습니다.

삶놈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속으로 쾌재를 올렸습니다.

허나 일은 삶놈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놈은 틀림없이 우리 마을에 기여든 나쁜 놈입니다. 아가리를 꺾꺾 벌릴 때 보니깐 풀먹는 토끼이발이 아닙니다.》

흰토끼의 말에 토끼들은 삶놈에게 왁 달려들었습니다.

그통에 껌짜 못하고 덜미를 잡힌 삶놈은 토끼가면을 흘랑 벗기우고말았습니다.

삶놈은 제 이마를 치면서 끝없이 너두리질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껌씹기를 한다는게 밥통같이 내 송곳이 생각은 하지도 못했구나.》

토끼들은 삶놈에게 돌탕을 안기며 소리쳤습니다.

《어리석은 놈아, 똑바로 알아뉘라. 각성된 우리를 어찌보려다가는 이 꼴이 된다는 것을!》